



공동체 소식



사순 제 1주일

주 하느님, 이 광야에서 간청하는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팔을 펼치시어 말씀의 빵으로 저희를 기르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 주시며, 저희가 단식과 기도로 악마의 끈질긴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정한조, 정지현(막달레나) 가정

사순시기 운동

- 한 가족 성경 쓰기 : 사도행전
- 주일미사 30분 전, 공동 십자가의 길
- Rice Bowl 봉헌

예비자 현황 파악

공동체 내의 예비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미 통신교리를 하고 있는 분이나 미국 성당에서 교리 중인 분, 혹은 뜻은 있으나 망설이는 분은 주임신부님께 구두나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3(토) 오후 5 : 30
- 장소 : KU 성 로렌스 성당

KAPA(북미주한인사목협회) 2차 헌금

- 일시 : 사순 제2 주일(2/24)
- 취지 : 해외파견 한국 선교사 지원

기타

- ‘거룩한 독서 모임’이 매 주 화요일 8시 미사 후 있습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2/10)’가 풍요롭게 거행되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재의 수요일’ 미사에 60여 분의 공동체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가정 당 1개 씩 Rice Bowl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일(2/17) 중심미사 후, 평협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2/24) 중심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5	217	151/161	12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이우영(가브리엘)	홍순익(마르띠노)
	이원준(요 한)	김준영(요 한)
차주	고영방(스테파노)	문석찬(요 셉)
	고평원(프란치스코)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제대봉사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 젤 라)
차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조경희(요안나 F.) 한정숙(마리아), 김말자(세실리아)
차주	문문주(엘리사벳), 최은미(아네스) 박정옥(수산나), 안니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차주	문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3	97명	724불(298불)	1,730불
2/3	120명	516불(100불)	1,430불

☞ ()는 목적헌금입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시기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에 앞서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시며 당신의 공생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로써 사순 시기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셨고 또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온갖 유혹을 떨쳐 버리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성화해설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예수님
(두치오 디 부오닌체냐, 1308-1311, Tempera on wood Frick Collection, New York)
오른손을 뻗어 산 아래의 화려한 도시들을 가리키며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은 위엄있는 표정으로 한 손은 걸음을 잡고, 또 한 손은 손가락을 곧게 펴서 성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외친다. 사탄은 험상궂은 모습 속에 숨겨진 가련함과 나약함을 드러낸 채 예수님의 눈치만 살핀다. 이제껏 예수님을 유혹하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하느님의 말씀, 사랑과 믿음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영현 시은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신명 26,4-10 <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



주 - 님 환 난 중 에 저 와 함 께 계 시 읊 소 서

1. 지존하신 임의 두둔 아래 사는 너 전능하신 임의 그늘 아래 머무는 너는 주님께 아뢰라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요새 저의 피난처 저는 당신께 의탁하되다.
2. 불행이 너에게는 오지 못하고 재앙도 네 막사에 얼씬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도다.
3. 행어 너 돌부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널 떠맡고 가리라. 너 살모사와 독사 위를 걸어 다니고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4. 나는 내게 숨어드는 자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을 받들기에 그를 감싸주리라. 내게 부르짖을 때 내 그의 소리를 들어주리라. 환난중에 그와 함께 내 있으리니 그를 구하여 영광롭게 하리라.

제 2 독서 : 로마 10,8-13 <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루카 4,1-13 <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

세 마

“유혹, 그 달콤한 매력”



오늘은 사순 시기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 대축일 전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단식하며 악마로부터 유혹 받으신 이야기였습니다. 유혹의 무대를 ‘광야’, ‘높은 곳’,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등으로 바꾸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겪었던 유혹을 세 폭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느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빵으로 표현된 재물이요, 권세와 영광이며, 또한 기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혹의 실체는, 인간이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충동을 의미합니다.

귀와 영화를 얻기위해 아무에게나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자기 삶의 기준입니다.

이야기의 세 번째 무대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인인 것은 예수님 안에 초능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을 의미하지 않고, 하느님이 하시는 은혜로운 일을 뜻합니다. 그런 기적 이야기들 안에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사람을 고치고 살리시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안에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인입니다.

오늘 유혹 이야기의 첫 무대는 광야입니다. 악마는 허기진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하느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어내는 데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느님의 일이 우리 안에 살아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특정 인물을 편애하고,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한 사람 잘 되겠다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배여 있는 따뜻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모와 가족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재물도, 권세도, 초능력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온기(溫氣)를 전달하지 못하면, 인간 사이에 차별과 불화와 냉혹함만 발생시킵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



마 중 물

하느님의 것과 내 것

천주교 신부님과 개신교 목사님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 세 사람이 모여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대교의 랍비가 돌아서서 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하느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신부님이 제안했다.

“사람 그만 웃기시오. 모든 걸 다 바친다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두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다.

“저는 먼저 땅에 줄을 긋고 제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줄 오른쪽에 떨어진 돈은 하느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지면 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소!” 랍비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는 하느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땅에 떨어진 모든 것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머무는 돈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못되는데요.” 하고 목사님이 말했다.

“저는 땅에 원을 그려 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지지요.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느님의 소유이고 원 바깥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2장 사도신경



20. 하느님의 섭리(攝理)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섭리란 하느님의 자상한 보살핌을 말합니다. 이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아직도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러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攝理)라고 부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302항).

성경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미소한 것에서부터 세계와 역사의 큰 사건들까지 모두 보살피십니다. 성경은 사건들의 흐름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을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셨네”(시편 115[113 하],3).(가톨릭교회교리서 303항).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의 사소한 필요도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자녀답게 의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